

2022년 케냐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정민지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mjjeong@kiep.go.kr, 044-414-1225)



차 례

1. 2022년 대선 결과
2. 신정부 주요 정책 방향
3. 시사점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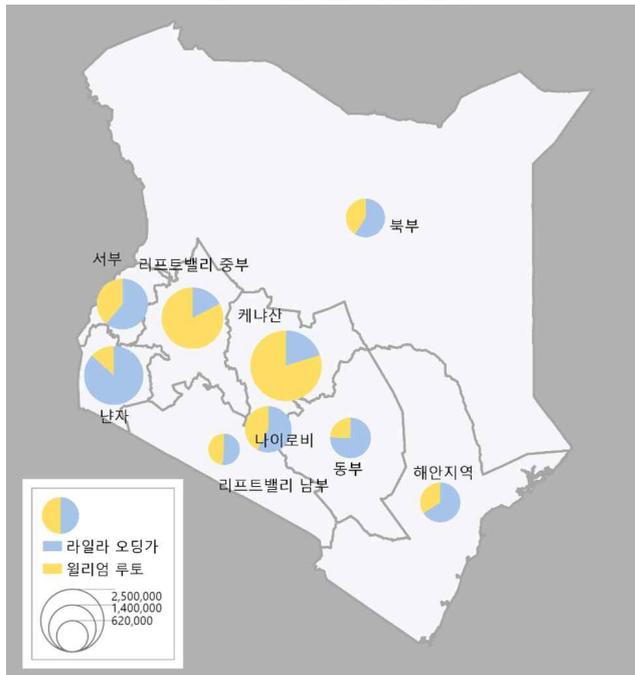
- ▶ 케냐 대선이 2022년 8월 실시되었으며, 법적 공방 끝에 9월 대법원이 최종 확정된 결과에 따르면 윌리엄 루토 전(前) 부통령이 리알라 오딩가 전 총리에 50.5% 대 48.9%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
 - 케냐 최대 종족인 키쿠유족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키쿠유족인 우후루 케냐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인 루토 후보가 아닌, 수년간 정적관계에 있던 오딩가 후보를 지지하면서 케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가 치러짐.
 - 루토 진영은 유력 정치가문 출신인 오딩가, 케냐타와 대비되도록 루토 후보의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서민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여 선거에서 승리함.
- ▶ 9월 취임한 루토 대통령은 '상향식 경제'를 표방하며, △농업 △중소기업 경제 △주거 △보건의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콘텐츠 산업을 5대 축으로 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을 제시함.
 - [경제]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식품물가 안정 및 농가소득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경공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이전 정부에서 문제되었던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임.
 - [복지] 신규주택 보급 확대, 건강보험기금 개혁, 일차보건의로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비용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제조를 활성화하고자 함.
 - [외교] 친서구적 정책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선거과정에서 루토 대통령이 반중(反中)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을 자제할 뿐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경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 루토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으나,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한국은 IT, 농업, 콘텐츠 산업, 통상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의 소득·고용 확대조치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고, 농업생산성 향상이 식품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는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면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수 있음.
 - 루토 정부가 제시한 서민 지원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정부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공약을 이행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국은 루토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서비스 온라인화, 쌀을 비롯한 농산물 자급 능력 향상, 문화 콘텐츠 창작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양자 무역 측면에서 협력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됨.

1. 2022년 대선 결과

■ 케냐 대선이 2022년 8월 9일 실시되었으며, 법적 공방 끝에 9월 5일 대법원이 최종 확정된 결과에 따르면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전 부통령이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전 총리를 50.5% 대 48.9%로 제치고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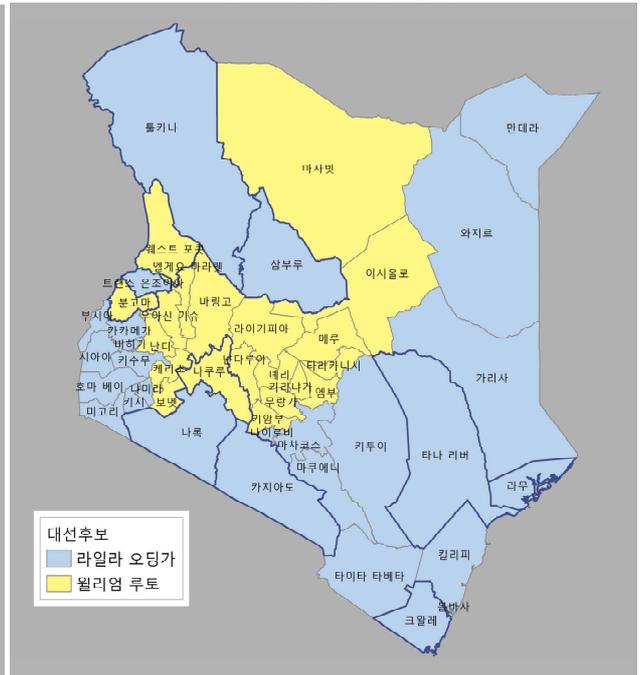
- 이번 대선은 케냐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이었으며, 양 후보간 표차가 국민의 0.4%(유권자 수의 1%)인 23만 표에 불과하였음.
- 케냐의 대선은 1차에 ① 전국에서 50% 이상 득표하고 ② 24개 선거구에서 25% 이상 득표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루토 후보는 첫 번째 최저기준을 0.5% 차이로 간신히 통과함.
 - 루토는 39개 선거구에서, 오딩가는 34개 선거구에서 25% 이상 득표하여 두 번째 조건은 두 후보 모두 충족하였음.

그림 1. 권역별 대선 결과



주: 원의 크기는 총 투표자 수임.
자료: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주별 대선 결과



주: 각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주(county)를 표시하였으며, 사전 여론조사에서 '접전지역'으로 분류된 주는 굵은 테두리로 표시.
자료: 케냐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투표율은 64.77%로 2017년 대선(79.51%)¹⁾에 비해 낮았으며, 루토는 케냐산(Mt Kenya) 및 리프트밸리 중부(Central Rift) 지역에서 승리하였고, 오딩가는 수도 나이로비(Nairobi), 난자(Nyanza), 동부(Lower Eastern), 해안지역(Coast)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음.

1) 2017년 1차 대선 기준 투표율임.

- 47개 주 중 오딩가 후보가 27개 주, 루토 후보가 20개 주에서 승리하였으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루토 후보가 큰 득표 차로 승리하며 전국적으로 더 많은 득표수를 얻었음.
- 두 후보는 각각 자신의 종족 거주지(오딩가-루오족-난자, 루토-칼렌진족-리프트벨리 중부)에서 강세를 보임.
-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 나이로비에서 오딩가는 57% 대 42%의 비교적 적은 표차로 승리함.
- 반면 루토는 나이로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케냐산 지역의 키암부(Kiambu), 메루(Meru) 및 두 후보의 접전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리프트벨리 중부의 나쿠루(Nakuru)와 서부의 분고마(Bungoma) 등에서 63~79%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승리함.
- 케냐 북부, 해안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오딩가 후보가 많은 지지를 얻은 반면, 도시화가 진전된 리프트벨리 중부, 케냐산 지역에서는 루토 후보가 우세했음.²⁾
- 조지 와자코야 후보는 0.4%, 데이빗 와히이가 후보는 0.2%를 득표함.

■ 오딩가 후보는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8월 22일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9월 5일 이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루토의 당선을 확정함.

- 8월 15일 케냐 선거관리위원회(IEBC) 위원장의 선거결과 발표 당시 야당에서 선거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케냐 선거관리위원회(IEBC) 위원 7명 중 4명은 선거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³⁾
- 선거결과에 불복할 경우 후보자는 선거결과 발표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대법원은 이의제기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선거결과적 적법성 여부를 판결해야 함.
- 오딩가는 선거 절차상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며 8월 22일 대법원에 이의 청원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9월 5일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하고 루토의 승리를 최종 확정함.
 - 이번 대선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선거인 신원을 확인했는데,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전자 선거인 명부 대신 종이 선거인명부를 사용하였고, 일부 지역에서 주지사, 하원의원, 주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등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는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진 것으로 평가됨.⁴⁾
- 2017년에도 오딩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을 실시한 바 있음.
 - 2017년 8월 선거에서는 우후루 케냐타 후보가 54.17%, 라일라 오딩가 후보가 44.94%를 득표하였으며, 오딩가 후보의 문제제기 이후 10월 다시 실시된 선거에서는 오딩가 진영이 선거를 보이콧한 관계로 케냐타가 98.26%, 오딩가가 0.96%를 득표함.
- 대법원이 선거결과를 확정함에 따라 루토 대통령은 9월 13일 취임하였음.

■ 케냐타 전 대통령과 루토 후보 간 정치적 균열 및 케냐타와 오딩가 후보가 간 극적인 정치적 화해로 인해 대선이 혼전 양상을 띠었으며, 케냐타-오딩가 진영에 대항하여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킨 루토가 당선됨.

2) 해안지역에서도 대도시이며, 루토 대통령이 폼바사항 활용 증대를 약속한 폼바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두 후보간 격차가 크지 않았음.
 3) IEBC 위원 4인은 득표수 집계 문제 등이 있는데 위원장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하였으나, 추후 이는 계산상 착오로 인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됨. IHS Markit(2022. 8. 17), "Kenya's presidential election likely to be disputed at Supreme Court, triggering large protests in capital."
 4) "In Kenyan Election, the People Decide First, Then Come the Judges"(2022. 9. 2), *The New York Times*(검색일: 2022. 9. 5).

- 케냐 대선에서는 종족별 이해관계가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키쿠유(Kikuyu)족에서 대선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키쿠유족인 케냐타 전 대통령이 오딩가 후보와 수년간 정적 관계에 있다가 이번 대선에서 입장을 선회해 오딩가 후보를 지지하면서 키쿠유족 내부에서 표심이 갈림.
 - 키쿠유족 엘리트들은 오딩가를 지지한 반면, 케냐타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키쿠유족 서민 대 다수는 루토를 지지했으며, 종족 구성원들이 종족 엘리트와 다른 투표행태를 보인 것은 이례적임.⁵⁾
- 루토 신임 대통령과 케냐타 전 대통령은 정치적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13년과 2017년 대선에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오딩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바 있음.
 - 케냐타와 루토는 2007년 대선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되었다가 2016년 기소가 철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케냐타와 루토 간 정치적 협력관계가 결성되었음.
- 케냐타와 루토 간 협력관계는 2018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케냐타는 2022년 대선에서 자신의 부통령인 루토가 아니라 오랜 경쟁자였던 오딩가 전 총리를 지지함.
 - 케냐타 전 대통령과 오딩가 전 총리는 2018년 극적으로 화해하였으며, 그 결과로 Building Bridges Initiative(BBI)를 발족하였는데, 루토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BBI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⁶⁾
 - 정부 고위인사 중 루토 지지자들이 부패혐의로 기소되면서 케냐타-루토 간 연합에 균열이 심화됨.
- 이번 대선을 ‘고군분투하는 서민 대 유력가문 간 경쟁(hustler vs. dynasty)’이라고 주장한 루토 대통령은 오딩가 전 총리와 그를 지지하는 케냐타 전 대통령이 ‘유력 정치가문 출신’인 반면 자신은 ‘길에서 땅콩과 닭을 팔던 서민 출신’임을 부각시켜 소상공인 및 노동자 계층의 표심을 공략함.
 - 오딩가 전 총리의 아버지 자라모기 오딩가 오딩가(Jaramogi Oginga Odinga)는 케냐 1대 부통령이며, 케냐타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 케냐 1대 대통령임.
 - 현재 루토 대통령은 대지주이자 재력가이기 때문에 루토 대통령의 선거 프레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함.

2. 신정부 주요 정책 방향

- 루토 대통령은 ‘상향식 경제(bottom up economics)’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농업 △중소기업 경제 △주거 △보건의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digital superhighway) 및 콘텐츠 산업을 5대 축으로 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을 제시함.⁷⁾
- 루토 대통령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hustle)하는 서민’을 뜻하는 ‘허슬러(hustler)’를 위한 국가를 표방하면서 서민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함.
-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점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상향식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하며 청년층 지지 확보에 주력함.

5) "Why did Kenyans elect Ruto as president?"(2022. 8. 24), *The Washington Post*(검색일: 2022. 10. 1).

6) 오딩가가 케냐타를 ‘정당성 있는 케냐의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대가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총리직 신설 등 기존에 오딩가가 선호하던 조치들을 실현하려고 하였음. Oxford Analytica(2021. 5. 20), "Kenya court's BBI rebuff may throw 2022 poll wide open."

7) 본 절에서 소개하는 신정부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루토 대통령 대선 공약집 및 취임연설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허슬러 기금(Hustler Fund)’을 설립하여 대출, 디지털 경제, 콘텐츠 산업, 보건의료 서비스, E-모빌리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다방면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함.

표 1. 루토 대통령 주요 공약 및 예산 계획

분야	주요 내용	예산 (2022/23~2026/27 회계연도 기준)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투입물에 대한 자금 지원, 농가 역량강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달성 • 차, 커피 등 주요 수출작물 수출 증대 • 옥수수 등 주요 농식품 가치사슬 강화 • 쌀, 유지류 생산 증대를 통한 농산물 수입의존도 감소 	2,500억 실링 (약 20억 6,500만 달러)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노동자 보호조치 도입 •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자금 확보 지원에 500억 실링 투입 • 기업 대상 행정업무 단순화 및 행정비용 감축 	2,500억 실링 (약 20억 6,500만 달러)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신규주택 25만 호 공급 • 적절한 가격의 서민주택 비율 증대(2%→50%) • 소액 모기지 대출을 도입하여 모기지 대출 활성화 	2,500억 실링 (약 20억 6,500만 달러)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입기준 변경 및 가입자 확대 • 의료인력 2만 명 충원 및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개선, 의료서비스 이용료 인하 • 퇴직 공무원 협회에 500억 실링 지원 • HIV, 말라리아, 결핵 등 국가 지정 분야 지원에 1,000억 실링 배정 • 의료용품 조달청의 투명성, 효율성 개선 	전체 공약 이행예산 미발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 및 콘텐츠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 광대역망 확충 및 통신비 인하 • 정부행정 서비스 80% 온라인화 • 콘자 테크노폴리스 개발 적극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문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문화시설 건설 	400억 실링 (약 3억 3,000만 달러)

주: 환율은 10월 6일 기준임.
자료: 루토 대통령 대선 공약집.

가. 경제

1) 물가 안정 및 농업 지원

■ 케냐에서는 물가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역부족이라 국민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음.

- 케냐는 2022년 들어 식품과 연료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9월 물가상승률은 9.2%, 식품 물가상승률은 15.5%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해 농산물 수입가격이 오르고, 정부가 연료 공급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연료 부족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⁸⁾

- 식품물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온라인에서도 식품물가 인하를 요구하는 해시태그 (#lowerfoodprices) 캠페인이 전개되는 등 케냐 국민의 물가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함.
- 5월 물가상승률이 7.1%를 기록하며 케냐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관리목표(2.5~7.5%) 한계치에 근접하자 중앙은행은 2년간 7%에서 유지해오던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함.
- 그러나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이 계속되자 중앙은행은 9월 말에 기준금리를 8.25%까지 75bp 인상함.

그림 3. 케냐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주: 전년동기대비 물가상승률임.

자료: 케냐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2. 9. 28).

■ 루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으로 식품과 비료 물가 안정을 내세웠으며, 정부가 비료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주요 농식품 가치사슬 강화와 자급률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 증대 △식품 물가상승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활고를 완화하고자 함.

- 농업은 케냐 GDP의 22%, 고용의 54%를 담당하는 상황으로, 루토 대통령은 농업 주도 성장이 소득에 미치는 승수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농업 지원책을 발표함.⁹⁾
- 농업 투입물(비료, 종자) 관련 자금 지원 및 농민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0만 명에 이르는 빈농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개인의 식량 자급과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루토 대통령은 취임 즉시 50kg 비료 140만 개를 시장가격의 반값 수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함.¹⁰⁾
- 수출 측면에서는 △주요 수출품인 차(tea)의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에 수출이 저조했던 커피, 제충국(pyrethrum), 캐슈너트 생산을 증대시키고 △신형 수출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아보카도, 마카다미아 수출을 활성화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함.

8) 케냐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리터당 5.4실링의 세금을 부과하고 이 자금을 연료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 자금을 원유시설 개선에 사용하여 연료 수입에 필요한 보조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없었음.

9) GDP 및 고용 대비 농업 비중은 가용한 가장 최근 데이터 기준임. World Bank(2022), "World Bank Open Data"(검색일: 2022. 10. 4).

10) IHS Markit(2022. 9. 19), "Kenya's newly elected president cuts fuel subsidies, improving alignment with IMF, but fiscal consolidation remains challenging."

- 케냐의 커피 생산량은 최근 감소세에 있으며, 생산 잠재력은 20만 MT인데 현재 생산량은 4만 MT에 불과하여 생산량 증대가 필요함.
- 주요 식자재인 옥수수, 유제품, 육류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가치사슬을 강화할 계획임.
- 쌀과 유지류 생산량 증대를 통해 농산물 수입 의존도를 현재 대비 3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농가소득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농업 위험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농민조직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작물·가축 보험, 농산물 선물(future) 계약, 가격 안정화, 정부 수용(收用) 농지에 대한 최소 보상액 보장 등의 조치를 포함함.

2)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 창출

■ 케냐의 노동시장은 청년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며, 비농업 부문 고용의 약 85%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케냐에서는 절반 이상이 아직 농업에 종사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발달이 더딘 상황으로, 공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째 6%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케냐의 실업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보다 양호한 2.8%였으나, 2021년에는 5.7%까지 증가함.
 - 특히 청년실업률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13.8%에 달함.
 - 케냐의 경제규모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4위에 해당하고, 동아프리카에서 경제가 가장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나, 청년실업률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평균에 근접함.
- 1,800만 명의 케냐 노동자 중 1,500만 명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노동자이며, 이는 비농업 부문 고용의 85%에 해당함.
- 이 중 1,000만 명가량은 행상인(hawker) 등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노동자로, 영업행위가 범죄시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낮음.

그림 4. 케냐 산업 부문별 고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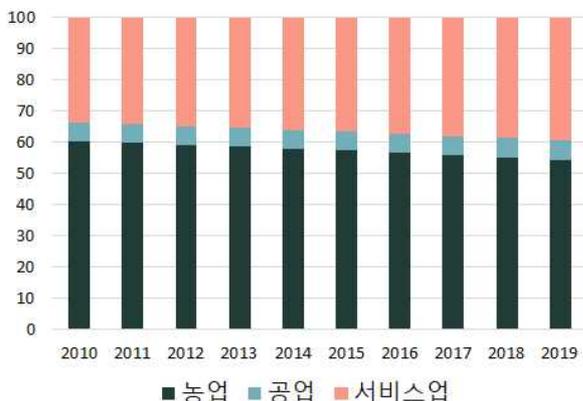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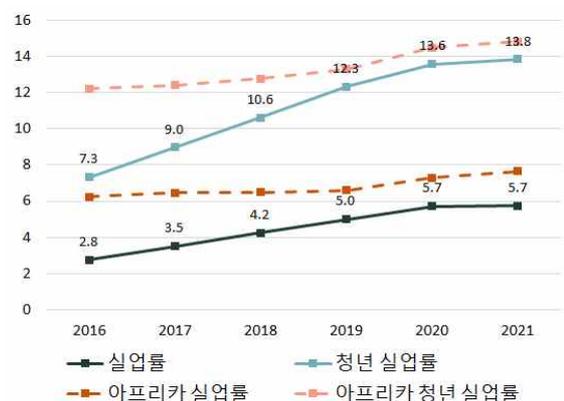


그림 5. 케냐 실업률

(단위: %)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2. 9. 28).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2. 9. 28).

- 루토 대통령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경공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서민 대출을 확대하고 비공식 부문 노동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 루토 대통령은 ‘허슬러 기금(Hustler Fund)’을 설립하여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기금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을 재분배할 계획임.¹¹⁾
 - 500억 실링(약 4억 1,400만 달러)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협동조합, 벤처캐피털, 장기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용조회국(Credit Reference Bureau)의 신용대출 제도를 개편하여 서민의 대출 비용을 인하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할 계획임.
 -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개발부(Ministry of Cooperatives and SME Development)’를 신설할 예정임.
 - 행상(行商) 허가증 도입 및 합법적 영업공간 마련을 통해 비공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 공업 단지,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를 건설 및 활성화하여 노동집약적 경공업(가죽, 건설부자재, 의류·섬유 등)을 중심으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임.
 - 나록(Narok), 이시올로(Isiolo), 와지르(Wajir) 등에 가죽 공업단지를 건설할 예정임.
 - 세금 납부 및 준법감시(compliance) 관련 행정업무를 단순화하는 법을 도입하고 사업 허가증 취득비용을 인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축소하고자 함.

3) 정부부채 축소

- 최근 수년간 대외부채가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케냐타 전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들어온 중국 차관(借款)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 케냐의 대외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1년에는 GDP 대비 38.5%인 42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7.1%에 달하였음.¹²⁾
 - 대외부채 중 특히 중국 차관의 비중이 높는데, 케냐는 2000~19년간 중국으로부터 91억 7,5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했으며, 케냐타 대통령이 집권한 2013년 이후 차관 규모가 급증함.¹³⁾
 - 차관 누계 기준 교통부문이 66%, 전력부문이 13.9%, 다부문(인프라 건설)이 6.5%를 차지하며, 교통부문 차관 대부분은 표준궤철도(Standard Gauge Railway) 및 나이로비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됨.
 - 기관별로는 중국 수출입은행의 비중이 90.3%로 압도적으로 높고, 중국개발은행이 9.3%, 중국국제개발처(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가 0.3%, 중국정부가 0.1%를 차지함.
 - 중국 차관이 증가한 시기에 루토 신임 대통령 본인도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련 없이 케냐타 대통령과 측근들이 정부부채를 확대했다고 주장함.

11) Oxford Analytica(2022. 9. 30), “Economy may define Kenyan president’s first 100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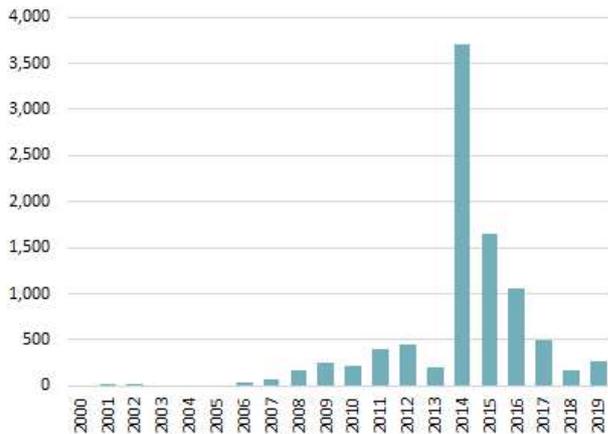
12) Oxford Economics(2022. 9. 13),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

13)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and 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 Version 2.0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검색일: 2022. 9. 29).

- 2022년 케냐의 중국 차관은 8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2/23 회계연도 정부예산이 278억 6,000만 달러임을 고려할 때 중국 차관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상황임.¹⁴⁾

그림 6. 케냐 중국 차관 도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차관 도입 당시 금액이며, 상환한 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and 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2. 9. 27).

그림 7. 케냐 중국 차관 분야별 분류

(단위: 백만 달러)



주: 차관 누계이며,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고려하지 않음.

자료: China Africa Research Initiative and Boston University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 Chinese Loans to Africa Database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2. 9. 27).

■ 루토 대통령은 정부부채 축소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중시하며, 정부 지출은 줄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데 전념할 계획임.

- 루토 대통령은 케냐타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무분별하게 부채를 늘렸다고 지적하며 차관 확대를 자제하고, 예산에 미리 계획되지 않은 사업은 실행하지 않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¹⁵⁾
- 루토 대통령은 의회 개회 연설에서 막대한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경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부채를 확대하는 대신 경상지출 규모를 축소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재무부에 이번 회계연도 예산에서 지출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25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축소할 것을 지시함.¹⁶⁾
- 루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인 9월 14일 휘발유 보조금을 폐지하고 경유 및 등유에 대한 보조금은 50%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부부채를 줄이고 IMF 및 세계은행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¹⁷⁾
 - IMF는 케냐가 확장차관제도(Extended Credit Facility)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라고 요청해왔음.
 - 케냐는 2022년 기간 월 9,800만 달러를 연료 보조금에 사용했는데, 이를 대폭 축소하고 훨씬 적은 3,500만 달러를 비료 보급에 투입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14) "Kenya presidential hopeful Ruto promises to publish contracts with China"(2022. 7. 21), *Reuters*(검색일: 2022. 9. 22).

15) "Key takeaways from Kenya's presidential election debate"(2022. 7. 27), *Al Jazeera*(검색일: 2022. 8. 1).

16) Oxford Analytica(2022. 9. 30), "Economy may define Kenyan president's first 100 days."

17) IHS Markit(2022. 9. 19), "Kenya's newly elected president cuts fuel subsidies, improving alignment with IMF, but fiscal consolidation remains challenging."

4) 디지털 초고속 통신망 및 콘텐츠 산업

■ 루토 정부는 전국적으로 디지털 초고속 통신망(digital superhighway)을 확충하고 통신비를 인하하여 인터넷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서비스를 온라인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10만 km의 국가 광섬유 통신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5년 내 전국적으로 광대역 통신망을 확충할 계획임.
- 통신비를 인하하여 서민, 특히 청년들이 정보 수집, 영업, 여가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과학기술정책 부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 내 기술발전 추진역량을 강화할 예정임.
- 주요 행정절차를 디지털화 및 자동화하여 정부 행정서비스의 80%를 온라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년간 진척이 없었던 ‘콘자 테크노폴리스(Konza Technopolis)’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 연구기관,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AI, 로봇틱스 등 신기술에 투자하고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케냐의 역내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루토 정부는 문화 콘텐츠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법제를 정비하여 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표현의 자유 확대 △문화시설(공연장, 갤러리, 영화관 등) 건설재원 확보 △문화 콘텐츠 생산 확대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공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음악부문 저작권법 강화 및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관련 창작자 수익 구조 단순화
 - 「콘텐츠산업법(Creative Economy Bill)」을 입안하여 영화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을 영화제작 인프라 개선 및 국제 영화제작자 유치에 활용
- 통상정책에서 콘텐츠 산업을 주류화하고,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마케팅할 수 있는 미술 및 공예품 포털을 신설하며, 해외공간 등을 활용해 케냐 문화 콘텐츠를 홍보할 계획임.

나. 복지

1) 보건 의료

■ 루토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기금 개혁, 의료인력 및 재정 충원, 일차보건의료 개선, 지방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함.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개인 기준 납입 시스템에서 가구별 납입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자 함.
 - 2018년 기준 케냐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전국적으로 20%인데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으로, 수도 나이로비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40%인 반면, 농촌인 와지르(Wajir) 지역의 가입률은 1%에 불과함.
 - 현재 의료보험 체계는 개인별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여 직장인이 많은 가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반면 혜택은 직장인이 한 명 있는 가구와 동일하게 보장받고 있음.

- 2만 명의 의료인력을 충원하여 국민 1만 명당 의료인력을 현재 1.57명에서 WHO 권고 기준인 23명으로 확대하고자 함.¹⁸⁾
- 일차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의체계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을 충원하며 △의료서비스(진료, 약 처방, 검사 등) 이용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함.
 - 지방정부 예산 일부를 의료목적으로 용도지정(ring-fence)하도록 하고, 지방분권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중앙에서 의료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지방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 퇴직공무원협회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500억 실링(약 4억 1,400만 달러)을 배정할 예정임.
- 말리리아, 결핵, 수혈, HIV, 가족계획,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부문에 1,000억 실링(약 8억 2,800만 달러)을 투입할 계획임.
- 의료부문에 ICT 기술을 결합하여 원격의료 강화 및 의료관리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전자 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을 전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부패가 만연했던 케냐 의료용품조달청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용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공약함.
- 제약업체와 협력하여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사업비용을 축소하며, 필수적 의약품 및 의료용품 생산을 확대하여 역내 제약 허브로 도약하고자 함.

2) 주거

- 케냐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고 주택 가격 역시 높은 상황으로, 루토 대통령은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임.
- 연간 신규주택 25만 호를 공급하고, 감당할 만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주택자금 재원(국가 주거기금, 협동조합 사회적 주거 제도 등)을 마련하여 적정가격의 주택을 현재 2% 수준에서 50%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매년 주택 수요가 25만 호 정도 되지만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5만 호에 불과하며, 현재 5만 호의 주택 중 2%만이 적정가격인 것으로 평가됨.
- 루토 대통령은 신규주택 개발자들에게 적정가격의 주택을 개발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흥지를 매입함으로써 택지를 확보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 소액 모기지 대출상품을 도입하여 현재 3만 건 수준인 모기지 대출을 100만 건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적정한 가격의 주택 개발과 모기지 대출 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에서 500억 실링을, 연기금에서 2,000억 실링을 충당할 계획임.
- 루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나이로비 빈민가를 직접 방문하여 신규주택 1만 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음.¹⁹⁾

18) 현재 수치는 2018년 기준임. WHO, "Medical doctors (per 10,000 population)"(검색일: 2022. 10. 11).

19) Oxford Analytica(2022. 10. 5), "New Kenyan president faces uphill challenge to deliver."

다. 외교

1) 중국

- 중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케냐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증가하면서 반중 여론이 대두되었으며, 루토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러한 반중정서에 부합하는 조치들을 발표했으나, 실제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케냐의 중국 차관은 80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케냐 경제상황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막대한 중국 부채를 지적하는 반중 여론이 심화됨.²⁰⁾
 - 중국 차관 도입 조건이 공개되지 않고, 중국 자본으로 설립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부패 혐의에 휘말리면서 케냐 시민단체는 중국과의 계약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함.
 - 루토 대통령은 케냐와 중국 간 계약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인 노동자를 추방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함.²¹⁾
 - 루토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휴대폰, 노점 음식 판매 등 케냐인들이 해오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법 영업 중인 중국인 노동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함.
 - 그러나 표심을 얻기 위해 반중정서를 이용했을 뿐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국인 추방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이행할 가능성은 낮으며, 루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중국 특사단을 별도로 소개할 정도로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
 - 다만 반중 여론과 부채를 줄이기로 한 공약을 의식하여 당분간 대규모 차관 도입은 자제할 것으로 보이며, 표준궤철도 노선에 있는 나이로비 및 나이바샤(Naivasha)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보다 몸바사(Mombasa)항을 중요시함에 따라 표준궤철도 화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²²⁾

2) 미국

- 케냐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루토 정부도 이러한 기초를 계승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 케냐는 독립 이후 친서방 정책을 견지해왔으며, 최근에는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권과 모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아프리카 최초로 미국과의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체결을 준비 중임.
 -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은 FTA보다 낮은 수준의 협력관계로, 현재 디지털 무역, 중소기업, 노

20) "Kenya presidential hopeful Ruto promises to publish contracts with China"(2022. 7. 21), *Reuters*(검색일: 2022. 9. 22); "China Spotlighted in Kenya's Presidential Race"(2022. 7. 28), *VOA*(검색일: 2022. 9. 18).

21) "China Spotlighted in Kenya's Presidential Race"(2022. 7. 28), *VOA*(검색일: 2022. 9. 18).

22) 표준궤철도는 케냐타 전대통령의 대표 업적이자 막대한 중국 차관이 투입된 사업으로, 과거에는 몸바사항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했으나 케냐타 전대통령이 표준궤철도 건설 이후 세관을 나이로비 및 나이바샤로 옮겼는데, 루토 대통령은 몸바사항에 세관을 복구하겠다고 함.

동환경 관련 협의를 준비하고 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자협력 체제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수혜국 중 일부와 FTA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케냐가 우선 협상국이 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FTA보다 낮은 단계의 양자협력 체제 구축으로 협상 방향을 선회함.
- 루토 대통령 취임식에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특사단 단장으로 참석할 정도로 양국간 현안에서 통상의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3) 다자외교

■ 루토 정부는 경제통합, 무역, 기후변화, 보건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 및 국제사회와의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동아프리카 주축 국가(anchor state)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함.

-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EAC) 회원국 간 경제통합 진전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역내 주축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2022년 11월 아프리카(이집트)에서 개최될 예정인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아프리카에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이 지원되도록 노력
 -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이용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 팬데믹 및 기타 보건 비상사태 대응에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국내 대응을 효율화하는 한편, 백신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호소

3. 시사점

■ 루토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루토 대통령의 서민 지원책은 생활고 완화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²³⁾
- 그러나 가계소득 및 고용 증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 식품 및 연료 가격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케냐의 물가상승률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2023년부터 경제활동이 둔화될 수 있음.²⁴⁾
 - 물가상승 대응을 위한 루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은 비료 등 농업투입물 보급을 확대하는 것인데, 비료 보급량 증대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도 시장에 농산물이 충분히 공급되어 식품물가가 하락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료 물가만 낮출 뿐 식품가격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23) Oxford Economics(2022. 9. 13),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

24) *Ibid*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농산물 자급률 향상을 통해 식품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정책 역시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려워 국제 식품가격 상승이 계속 자국 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연료 보조금 축소가 정부 재정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제유 수입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은 둔화될 수 있음.²⁵⁾
-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정부 재정수입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져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케냐 국채의 매력도를 하락시킬 수 있음.²⁶⁾
- 케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의 대출 금리 상승을 유발하여 “낮은 비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루토 대통령의 공약과 상반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서민 대출 활성화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부담을 느낀 루토 대통령이 최근 주요 통신사와 모바일 머니(M-Pesa)를 이용한 대출상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은행대출을 기대했던 국민의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다양한 서민지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이 많이 필요하므로 재정건전성을 대폭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²⁷⁾
- 루토 대통령은 올해 예산에서 3,000억 실링(25억 달러)를 절약할 것을 재무부에 지시하였고, 기존 정부 재원을 재배정(re-allocate)하여 ‘허슬러 기금’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나, 실제로 예산 축소 및 재배정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며, 임기 초반 정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음.²⁸⁾
- 적자 기록 중인 국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는 문제는 보다 민감하여 실행이 어려울 수 있음.²⁹⁾
- 단, IMF의 권고에 따라 정부지출 축소 노력을 지속한다면 적자 폭을 축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임.³⁰⁾

■ 정부의 재정 부족과 내각의 경험 부족은 루토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케냐 정부는 수년간 재정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재정적자는 GDP 대비 7.1%에 달하여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책 지원을 실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루토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명확하나 정부지출 축소 및 세수 기반 확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불분명한 상황으로, 임기 초반 공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³¹⁾
- 수도 나이로비는 오딩가 후보의 인기가 더 높은 지역으로, 루토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미진할 경우 반정부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³²⁾

25) IHS Markit(2022. 9. 19), “Kenya’s newly elected president cuts fuel subsidies, improving alignment with IMF, but fiscal consolidation remains challenging.”

26) IHS Markit(2022. 7. 5), “Kenya’s solid GDP growth in Q1 not likely to continue as rising inflation erodes real incomes.”

27) Oxford Analytica(2022. 10. 5), “New Kenyan president faces uphill challenge to deliver.”

28) Oxford Economics(2022. 9. 13), “Country Economic Forecast Kenya”; Oxford Analytica(2022. 9. 30), “Economy may define Kenyan president’s first 100 days.”

29) IHS Markit(2022. 9. 19), “Kenya’s newly elected president cuts fuel subsidies, improving alignment with IMF, but fiscal consolidation remains challenging.”

30) IMF는 케냐에 확장차관제도(ECF) 지원을 제공하면서 정부지출 축소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31) Oxford Analytica(2022. 9. 30), “Economy may define Kenyan president’s first 100 days.”

32) Oxford Analytica(2022. 10. 5), “New Kenyan president faces uphill challenge to deliver.”

- 첫 내각은 종족별,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국정운영 경험보다는 루토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인사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여성 대표성은 확보되지 않았음.³³⁾
 - 키쿠유족이 많이 거주하는 케냐산, 리프트밸리 중부 지역에서의 승리가 루토 대통령의 당선에 주효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내각 내 키쿠유족 인사가 케냐 5대 부족 가운데 가장 많으며, 이는 루토 대통령이 2027년 대선에서도 키쿠유족의 지지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인사 임명을 한 것으로 해석됨.³⁴⁾
 - 루토 대통령과 케냐타 전 대통령 간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정권 인사를 거의 배제하였으며, 전체 내각 구성원 중 내각 참여 경험이 있는 인사는 4명에 불과함.
 - 대선 공약에서는 내각의 1/2을 여성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여성 비율은 1/3에도 미치지 못함.³⁵⁾

■ 이번 대선에서는 종족간 대규모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정국운영에서 루토 대통령이 케냐타 및 오딩가 지지세력을 포용하고 종족간 화합을 이끌어낼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오딩가 후보를 지지했던 케냐타 대통령은 대법원의 선거결과 유지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했으며, 케냐타의 정치적 기반과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케냐타·오딩가 세력과 루토 대통령 지지 세력 간 협력 여부가 원활한 국정운영과 정세안정에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케냐타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직성(probity)에 의문을 제기하고 케냐인들에게 선거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달라고 촉구함.³⁶⁾
- 루토 대통령은 케냐타 전 대통령의 역내 평화 증진 노력을 높이 사고 평화협상 관련 역할을 계속 맡아달라고 제안하였으며, 이는 케냐타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국내 갈등을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보임.³⁷⁾
- 루토 대통령의 Kenya Kwanza 연합 소속 인사가 다수의 지지를 받아 상·하원의장 및 부의장이 된 것은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정국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³⁸⁾
- 선거 당일 시위 등 41건의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7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종족·정치 진영 간 대규모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음.³⁹⁾
 - 정치·종족 엘리트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기소받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폭력 선동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선거에서는 종족 구성원과 지도자들 간 의견 불일치도 있어 선동이 있었더라도 위협을 감수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⁴⁰⁾
 - 2007년의 경우 나쿠루(Nakuru)주에서 발생한 폭력사태가 심각했는데, 당시에는 키쿠유족(Kikuyu)과

33) *Ibid*

34) 케냐 5대 부족은 키쿠유(Kikuyu), 루히야(Luhya), 칼렌진(Kalenjin), 루오(Luo), 캄바(Kamba)족이며, 루토 대통령은 자신의 종족인 칼렌진족보다도 키쿠유족 인사를 더 많이 기용함.

35) 대통령, 부통령, 최고내각장관(prime cabinet secretary)을 포함했을 때의 비율임.

36) Oxford Analytica(2022. 9. 6), "Supreme Court ends Odinga's Kenya pill challenge."

37) 케냐타 대통령은 DR공고 정부와 무장단체 간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으며, 에티오피아 분쟁과 관련해서는 반군 측이 기존 아프리카연합 특사를 반대하고 케냐타 대통령이 협상을 주도해줄기를 요구하는 상황임. Oxford Analytica(2022. 9. 14), "Ruto's Kenya envoy proposal may prove key peace offer."

38) IHS Markit(2022. 9. 19), "Kenya's newly elected president cuts fuel subsidies, improving alignment with IMF, but fiscal consolidation remains challenging."

39) 주케냐한국대사관(2022. 9. 7), 「케냐 주간 정세동향 (8.29-9.5)_정치」(검색일: 2022. 9. 26).

40) 케냐타 전대통령과 루토 신임 대통령은 과거 ICC로부터 선거폭력 조장 관련 혐의로 기소받은 적이 있음. "Why did Kenyans elect Ruto as president?"(2022. 8. 24), *The Washington Post*(검색일: 2022. 10. 1).

칼렌진족(Kalenjin)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랐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양쪽 다 루토 후보를 지지하여 상대적으로 무력충돌 위험을 완화함.

- 오딩가 후보의 종족인 루오족(Luo)은 케냐 5대 종족 중 하나로, 루토 대통령이 루오족의 신임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은 루토 정부와 농업 생산성 향상, 전자정부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통상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업 생산성 향상은 루토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특히 '쌀 자급능력 개선'이 대선 공약 중 하나인데, 한국은 종자 개량 측면에서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쌀 품종 개량 및 보급 사업을 성공한 경험이 있어 향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농촌진흥청 산하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는 아프리카 벼 연구소와의 협력하에 통일벼를 개량하여 세네갈, 말리, 말라위에 생산성이 높은 벼 품종 11종을 등록한 바 있음.⁴¹⁾
- 공공 행정서비스의 80%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루토 대통령의 목표인데, 한국은 전자정부 선두국가로서 이미 개도국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하는 ODA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케냐의 전자정부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 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루토 대통령의 주요 추진 분야 중 하나이며, 콘텐츠 강국인 한국이 현지 창작자 역량강화 및 콘텐츠 제작환경 개선 측면에서 협력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임.
 - 이미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산업부문 협력기반을 조성할 경우 추후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케냐에서 시장 선점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⁴²⁾
- 케냐는 2020년 영국과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현재 미국과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논의 중으로, 한국도 FTA보다 낮은 수준의 양자 통상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루토 대통령이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커피는 한국의 대케냐 수입액의 70%를 차지하며, 케냐는 한국으로부터 철강(24%) 및 플라스틱 제품(17%)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 양국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상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케냐로의 원자재·중간재 조달이 용이해지면 한국 기업이 케냐에서 제품을 조립·생산하여 영국, 미국에 관세특혜를 받고 수출하는 생산방식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KIEP**

41)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22. 9. 28), 「농업기술 기반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 세계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

42)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신사와 야가씨', '모범택시', '사내맞선' 등이 올해 넷플릭스에서 케냐인들이 많이 시청한 드라마 상위권에 랭크됨. Flix Patrol, "TOP 10 on Streaming in Kenya in 2022(Full)"(검색일: 2022. 10. 12).